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

尹 致 富*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對偶法의 使用 |
| II. 異本의 變異와 存在樣相 | V. 맺음말 |
| III. 段落別 內容展開 | |

I. 머리말

〈耽羅別曲〉이 처음 학계에 소개되기는 1982년 尹錫昌 교수에 의해서이다.¹⁾ 그는 〈탐라별곡〉이 1749년부터 1751년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鄭彦儒의 작품이라는 사실과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실학사상의 영향 아래 씌어진 兩班歌辭와 敎訓歌辭라고 규정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조동일 교수가 그의 《한국문학통사》에서 紀行歌辭라고 짚막하게 언급하였으며²⁾, 류연석 교수의 《韓國歌辭文學史》에서도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훈가사이면서 기행가사라고 하고 있다.³⁾

*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임강사

- 1) 尹錫昌, “〈耽羅別曲〉研究”, 《명지어문학》 제12호, 명지대학 국어국문학과, 1982, pp. 81~97.
-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pp. 360~361. 1984의 초판 《한국문학통사》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가 개정판에서는 〈탐라별곡〉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조동일 교수는 개정판에서 “1749년부터 이태 동안 제주목사 노릇을 한 작자가 가사를 지어, 백성의 궁핍한 생활을 그리면서 동정을 나타내고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상투적인 격려와 훈계를 하는 데 그쳤다. 자기 자신은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할 처지가 아니어서 경치 구경을 하고,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들이거나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작가의식 더 나아가 작가정신을 문제삼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없다. 적어도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치유하는 데는 정언유 훈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으며 그것은 그 당시 권력의 증축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탐관오리와 같은 목민관이 아니었으며 백성들을 훈계하고 왕을 만날 수 있었던 “이곳에 物情民憂 細細히 알외고겨”라고 노래하고 있다. 경치 구경을 한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이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할 처지가 아니어서가 아니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례로써 그 당시 조정에서는 정언유의 요청에 따라 賑穀 3천 석으로 제주 백성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英宗大王實錄》卷之七十 25년 12월조 “甲辰, 命以賑穀三千石浮海, 救濟州民, 從牧使鄭彦儒之請也) 뿐만 아니라 영조 26년 봄에는 조를 청하여 賑給하고 따로 준비한 곡식 1천석으로 飢民을 救活하고 3년 간 大同米를 면제하였으며, 가파도에는 黑牛場을 설치하고 50수를 방목하여 進貢에 대비하고 있다. (金錫翼, 《耽羅紀年》卷之三 “二十六年春 牧使鄭彦儒 請粟賑給 別備穀一千石 救活飢民 蕩漚三年大同米 設黑牛場於加波島 放牛五十首 以備進貢”)
- 3)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국학자료원, 1994, p. 246.

이러한 사실은 <탐라별곡>이 학계에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가사작품들에 비해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첫째로는 정언유의 작품이 국문학사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이 작품이 18세기 제주도라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일 수 있으며, 셋째로 이 작품의 문학성 때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그는 世子侍講院 弼善과 刑曹參判·戶曹參判을 지낸 만큼의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李重煥의 《擇里志》의 서문을 쓸 만큼의 인정받던 문사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목사로서의 특수체험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는 것은 작품의 많고 적음과 時空間의 문제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 작품이 과연 문학성이 떨어지는 작품인가라는 점은 세밀한 연구작업을 거친 다음에 평가해도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 두루마리 필사본⁴⁾과 정언유 문집 《迂軒集》 소재 필사본을 대교하여 선후관계를 살펴 보고, 단락별 내용의 전개양상을 파악함과 아울러 두드러진 표현방식인 對偶法의 사용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탐라별곡>의 미적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異本의 變異와 存在樣相

윤석창 교수는 <탐라별곡>의 이본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 두루마리 필사본(A)과 《우현집》 소재 필사본(B)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고행일 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행에 걸쳐 표기법상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고행의 차이뿐 아니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자 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제 좀더 두 이본의 변이상황을 살펴 보기 위하여 양본을 대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耽羅 넷 都邑이 몇 千年 基業인고 / 星主 王子 지난 후에 物換星移 오리도다

B. 耽羅 넷 都邑이 몇 千年 基業인고 / 星主 王子 지난 後에 物換星移 오리도다

A. 城郭이 긋쳐스니 人民인들 넷 갓뜰손가 / 聖朝에 臣屬되매 命吏를 보내시니

B. 城郭이 긋쳐스니 人民인들 넷 갓홀손가 / 聖朝의 臣屬되미 命吏를 보니시니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 두루마리 필사본의 <탐라별곡> 전문은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다.

5) 尹錫昌, 앞의 글, p.82.

<迂軒集>의 '미엿스나, 接하난 듯' 등이 '미여시나, 接하느 듯' 등으로 표기된 차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A. 흥 도작 彈丸小島 大海에 셔잇난디 / 三邑을 논허 잇셔 솟발 ㄹ뵈 버려시니
 B. 한 조각 彈丸小島 大海에 셔잇난디 / 三邑을 分置하여 솟발 갖치 버려시니
- A. 山南은 兩縣이오 山北은 州城이라 / 土地는 그 얼마며 民物은 어디하니
 B. 山南은 兩縣이오 山北은 州城이라 / 土地난 그 얼마며 民物도 壯大하다
- A. 營門을 陞設하고 名位을 重히 하니 / 節制使兼防禦로 一島을 彈壓하니
 B. 營門을 陞設하고 名位를 重히 하여 / 節制使兼防禦로 一島를 彈壓이라
- A. □□에 차던 印綬 새 使君의 傳掌하고 / 行李를 收拾하야 嶺湖로 도라와서
 B. 寧海에 차던 印綬 시 使君께 傳掌하고 / 行李를 收拾하여 嶺湖로 도라와서
- A. 論書을 압세오고 重溟을 겨우 건너 / 禾北鎮 下碇하여 東城門 드러오니
 B. 論書를 압세오고 重溟을 겨우 건너 / 禾北鎮 下碇하여 東城門 도라드니
- A. 閭閻이 錯雜헌디 四隅에 石牆이오 / 街路가 廣平헌디 兩行에 楊柳로다
 B. 閭閻이 雜錯한데 四隅에 石牆이오 / 街路가 廣平한데 兩行에 楊柳로세
- A. 左右을 둘러보니 壯麗할손 公廡러다 / 觀德亭 노피 안자 將士의 禮貌밧고
 B. 左右를 둘러보니 壯麗할손 公廡로다 / 觀德亭 넘히 안저 壯士의 禮貌밧고
- A. 殿牌에 肅謝하며 斧鉞을 손에 쥐니 / 公然헌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B. 殿牌에 肅拜하며 斧鉞을 손에 쥐니 / 公然한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 A. 延曦閣 잠간 쉬어 巡歷길 밧비 나니 / 海防도 □止부며 風俗도 슬퍼보니
 B. 延曦閣 잠간 쉬어 巡歷길 밧비 나서 / 海方도 둘러보며 風俗도 살펴보니
- A. 어엿불스 우리 톱성 모습 일로 偏苦하여 / 衣食이 艱窘디니 興味가 이실손가
 B. 어엿불스 우리 百姓 무삼 일노 偏苦하여 / 衣食이 艱窘하니 興味가 잇슬소가
- A. 八陽足踏 계유 하야 薄田을 耕作하니 / 자른 호의 저근 부십 辛苦히 밭부쳐서
 B. 八陽足踏 겨우 하야 薄田을 耕作하니 / 자른 허의 적은 보십 辛苦히 매갓구어
- A. 五六月 盡力하여 西成을 브리더니 /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어
 B. 五六月 盡力하며 西成을 바라더니 /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어
- A. 惡風과 심흔 霜雨 히히마다 孔極하니 / 田畝을 브라보면 兵馬로 좃브룬 듯
 B. 惡風과甚한 霜雨 히히마다 孔極하니 / 田畝를 도라보면 兵馬로 짓발분 듯

- A.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죽쳐는 듯 / 나문 이삭 주어내니 빈 썩풀뿐이로다
 B.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죽쳤난 듯 / 남은 이삭 주어내니 빈 썩풀뿐이로다
- A. 무어슬 公債 잡고 엇디구러 사라날고 / 거리〃〃 모든 飢民 駕驕잡고 니룬 말이
 B. 무엇으로 公債 잡고 엇디구러 살아갈고 / 거리거리 모단 飢民 駕驕잡고 일는 말리
- A. 설울손 우리 性命 나라히 돌려시니 / 流民圖 옮겨다가 님 거신 디 알외고져
 B. 설러울산 우리 性命 나라헤 달녜스니 / 流民圖 wing겨다가 人君 기신 디 알외고져
- A. 가족옷 풀戰笠이 이 무산 衣冠이며 / 모밀밥 橡實粥이 괴 엇던 飲食일고
 B. 가족옷 풀戰笠이 이 무산 衣冠인고 / 모밀밥 橡實粥이 그 무산 飲食일고
- A. 歲〃에 國恩 넘어 羅鋪移米 虛費하니 / 請粟도 ㄸ치 업고 生計도 茫然하니
 B. 歲歲에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費하니 / 請粟도 ㄸ치 업고 生計도 茫然하다
- A. 牧子一族 鮑作 구실 이에서 더 설우며 / 舡格의 貿易 무리 괴 아니 難堪흔가
 B. 牧子一族 鮑作 구실 이에서 더 설우며 / 船格의 貿易 무리 그 안이 難堪한가
- A. 滄溟이 限隔하고 邦禁이 嚴截하니 / 살 곳에 못 가기는 紇干山 언새 ㄸ다
 B. 滄溟이 限隔하고 邦禁이 嚴截하니 / 살 곳에 못 가기난 紇干山 언시 갓도다
- A. 슬프다 너희 艱苦 내 어이 모르리오 / 힘대로 救濟키는 官長의게 뒤여시나
 B. 슬푸다 너의 艱苦 너 어이 모르리오 / 힘터로 救濟키난 官長에게 뒤엿스나
- A. 견디어 지내기난 네 마음에 돌려시니 / 그럴수록 惕念하야 상해 心性 保全하야
 B. 견디어 지너지난 네 마음에 달엿시니 / 글얼사록 惕念하야 常히 心性을 保全하야
- A. 天恩을 닛디 말고 父子兄弟 相愛하면 / 玉皇이 구버보샤 福祿을 주시느니
 B. 天恩을 닛지 말고 父子兄弟 相愛하면 / 玉皇이 구버보셔 福祿을 주시나니
- A. 窮困을 헛치 말고 네 道理 盡心하면 / 그 중에 榮華 이서 貧賤을 버서나니
 B. 窮困을 헛치 말고 네 道理 盡心하면 / 其中에 榮華 잇서 貧賤을 버서나니
- A. 네 시절 도라보면 그 아니 알 일〃가 / 三聖神 소사난 후 民俗이 淳和하니
 B. 넷 時節 도라보면 그 안니 알 일인가 / 三聖神 소사난 後 民俗이 淳和하니
- A. 歲事도 豊登하고 人畜도 蕃盛하야 / 집〃이 橋林이오 곳〃지 駿馬러라
 B. 歲事도 豊登하고 人畜도 蕃盛하야 / 집집이 橋林이오 곳곳이 駿馬러라

- A. 御乗도 에서 나고 祭牛도 에서 나니 / 國畜도 盛커니와 私屯인들 적글런가
 B. 御乗도 에서 나고 祭牛도 에서 나니 / 國畜도 盛커니와 私屯인들 격을손가
- A. 飛龍 又흔 宛馬種은 各牧場에 ㄹ득하고 / 黃金 又튼 洞庭橋은 公私園에 香내나니
 B. 飛龍 갖흔 宛馬種은 各牧場에 가득하고 / 黃金 갖흔 洞庭橋은 公私園에 香내난다
- A. 和平흔 別天地을 前古에 일러시니 / 도튼 세 그 世界에 너희 ㄹ치 설워하라
 B. 和平한 別天地를 前古에 일너스니 / 조흔 ㅈ 그 世界에 너희처럼 서러하라
- A. ㅎ물며 漢擎山이 天下에 일흠 이서 / 瀛洲가 奇異흠이 三神山에 ㅎ나히라
 B. 하물며 漢擎山은 天下에 일흠 잇서 / 瀛洲가 奇異함이 三神山의 하나이며
- A. 老人星 ㄹ근 光彩 壽域을 여러 노코 / 金光草 푸른 빗치 白髮을 검게 ㅎ니
 B. 老人星 발근 光彩 壽域을 여러 노코 / 金剛草 푸른 빗치 白髮을 검게 하니
- A. 네날에 秦皇漢武 못 보와 遺恨인디 / 너희는 仙分 ㄹ하 이곳에 生長ㅎ야
 B. 넷날의 秦皇漢武 못 보아 遺恨이라 / 너희난 仙分 조하 이곳에 生長하어
- A. 瀛室을 ㄹ티 두고 白鹿潭 우희 안자 / 流霞觴 ㄹ득 부어 老仙과 酬酌ㅎ니
 B. 瀛室을 ㄹ헤 두고 白鹿潭 우헤 안져 / 流霞觴 가득 부어 老仙과 酬酌하니
- A. 烟火食 不關커든 衣食念慮 이실소냐 / ㄹ톨 거시 무어시며 구흔 거시 무어시리
 B. 烟火食 不關커든 달은 念慮 잇슬소가 / ㄹ톨 것이 무엇이며 求할 것이 무엇이니
- A. 노푼 峯 을나서 塵土을 구버보면 / 큰 바다 잔만ㅎ디 世上이 春夢이니
 B. 늑흔 峰 을너서서 塵土를 구버보면 / 큰 바다 잔만하어 世上이 春夢이라
- A. 그 가운데 잇는 사롬 營爲ㅎ기 可笑로다 / 山房을 불작시면 빈 절만 基址 잇고
 B. 그 가운데 잇난 사람 營爲하기 可笑로다 / 山房을 불작시면 빈 절만 基址 잇고
- A. 土城을 슬퍼보면 네 陣셔 이서시니 / 萬事을 헤아리면 ㄹ 아니 헛되리오
 B. 土城을 살피보면 넷 陣터 잇서시니 / 萬事를 헤아리면 ㄹ 아니 헛되리오
- A. 金方慶 崔瑩 將軍 왓던 跡跡 ㄹ ㄹ 알며 / 李文京 三別抄는 叛亂만 지어잇네
 B. 金方慶 崔瑩 將軍 왓던 踪跡 ㄹ ㄹ 알며 / 李景文 三別抄난 叛亂단 지어잇네
- A. 九鎮이 버러 이서 防守을 申飭ㅎ매 / 兵械도 精巧하고 武士도 驍健ㅎ니
 B. 九鎮이 버러 잇서 防守를 申飭하미 / 兵器도 精巧하고 武士도 壯健하니

- A. 異國이 여어본들 나라 못 건너리니 / 軍餉이 업건마는 天塹이 밋분지라
 B. 異國이 여엇본덜 나라 못 건너리라 / 軍餉도 업건만은 天塹이 밋부도다
- A. 閑漫ᄃᆞᆫ 營中公事 開閉門은이로다 / 츠라히 막대 잡고 勝地나 遊賞ᄃᆞᆫ려
 B. 閑漫한 營中公事 開閉門은이로다 / 차라히 막대 잡고 勝地나 遊賞하러
- A. 翠屏潭 題名ᄃᆞᆫ고 登瀛丘 츠자가서 / 流觴曲水 노리ᄃᆞᆫ며 追雉 산영 시작ᄃᆞᆫ니
 B. 翠屏潭 題名하고 登靈區 차자가서 / 流觴曲水 노리하며 追雉 산양 시작하네
- A. 妓女의 歌管소리 仙樂과 和答ᄃᆞᆫ매 / 天風에 놀라 笙鶴 半空에 나라노니
 B. 妓女의 歌管소래 仙樂과 和答하미 / 天風에 놀는 笙鶴 半空에 나리오니
- A. 世緣을 다 셔치고 匈海을 더 널리니 / 赤松子 安期生을 거의 서로 만날러니
 B. 世緣을 다 셨치고 匈海을 더 널워미 / 赤松子 安期生을 거의 셔로 만날러니
- A. 王事을 못 닛져서 驅點을 시작ᄃᆞᆫ여 / 十二場 츠레지여 往來ᄃᆞᆫ며 보살피니
 B. 王事을 못 닛져서 驅點을 시작이라 / 十二場 차레지여 往來하미 보살피니
- A. 무리〃〃 모든 물이 구름인가 비단인가 / 壯觀이 더ᄃᆞᆫ기는 山馬點烙이로다
 B. 무리무리 모단 말이 구름인가 비단인가 / 壯觀이어 더ᄃᆞᆫ기는 山馬點烙이로다
- A. 木柵을 구지 겹고 一時에 모라내니 / 노는 듯 췌노는 듯 암곡이며 님슈로다
 B. 木柵을 구지 겹고 一時에 모라내니 / 나난 듯 췌노난 듯 巖谷이며 林藪로다
- A. 북소리 旗幟 빗티 山獸조차 내드러니 / 豪健ᄃᆞᆫ 모든 將校 닛트와 지조 뵈니
 B. 북소래 旗幟 빗헤 山獸조차 너다라니 / 豪健한 모단 將校 닛트와 재조 뵈다
- A. 獐鹿도 만커니와 武勇도 壯ᄃᆞᆫ도다 / 一場에 勝ᄃᆞᆫ로움 보기도 뎡커니와
 B. 獐鹿도 만커니와 武勇도 壯하도다 / 一場에 勝ᄃᆞᆫ로움 보기도 조커니와
- A. 民事을 헤아리니 心膽이 아득ᄃᆞᆫ여 / 悄〃이 도와〃셔 臥仙閣 비겨더니
 B. 民情을 헤알리니 心膽이 아득하여 / 悄悄히 도러와셔 臥仙閣의 비겨더니
- A. 無端ᄃᆞᆫ 츠 비발이 橘園에서 니러나니 / 시음으로 자던 꿈을 놀라 셔여 니러나셔
 B. 無端한 찬 비발암 橘園에서 이러나네 / 試驗으로 자던 꿈을 놀나 셔여 일어나셔
- A. 望京樓 노푼 欄干 의지ᄃᆞᆫ여 멀리보니 / 바다빋 아득ᄃᆞᆫ디 長安이 머러시니
 B. 望京樓 넘흔 欄干 의지하여 멀리보니 / 바닷빋 아득한대 長安이 머러셔라

- A. 瓊樓玉宇 縹緲한 곳 우리 님군 치우신가 / 孤臣의 수문 금신 到處에 밋쳐시니
 B. 瓊樓玉宇 縹緲한 곳 우리 인군 치우신가 / 孤臣의 숨은 근심 到處에 밋쳤시니

- A. 어너 세 順風 만나 險海을 利涉하여 / 이곳에 物情民憂 細히 알외고져
 B. 어나 석 順風 만나 險海를 利涉하여 / 이곳에 物情民憂 細細히 알외고져

- A. 嘿히 혼자 안자 빅 가지로 思量하니 / 술이나 盡醉하여 한세나 니줄리라
 B. 嘿嘿히 혼자 안져 百 가지로 思量하니 / 술이나 盡醉하여 한세나 이즈리라

- A. 一盃 " " 復一盃로 無盡 " " 먹어시니 / 睡鄉인 듯 醉鄉인 듯 客懷世慮 有無間에
 B. 一盃一盃復一盃을 無盡無盡 먹어스니 / 睡鄉인 듯 醉鄉인 듯 客懷世慮 有無間에

- A. 바람길 畫角聲이 玉簫仙을 접하는 듯 / 恍惚한 이 내 몸이 華胥天에 와 잇는가
 B. 바람길 畫角聲이 玉簫仙을 接하난 듯 / 恍惚한 이 내 몸이 華胥天에 와 잇는가

- A. 塵客인가 仙官인가 그 뒤라셔 分辨하리 / 어와 이렇저렇 디내니 萬斛시음 다
 프러버리거다

- B. 塵客인가 仙官인가 거 뒤라셔 分辨하리 / 어와 이렇저렇 지내니 萬斛실음 다
 푸러바리거라

이렇게 대교해 보면 표기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표기상의 차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시대상의 선후가 발견된다. 그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다시 뽑아내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은 행을 표시한 것이다.

人民인들 넷 갓뜯손가 → 인민인들 넷 갓뜯손가(3)

聖朝에 臣屬되매 → 聖朝의 臣屬되미(4)

흔 도각 彈丸小島 → 한 조각 彈丸小島(5)

숫발 ㄱ퇴 버려시니 → 숫발 갖치 버려시니(6)

土地는 그 얼마며 → 土地난 그 얼마며(8)

閭閻이 錯雜한디 → 閭閻이 雜錯한데(15)

어엿볼스 우리 백성 → 어엿볼스 우리 百姓(23)

興味가 이실손가 → 興味가 잇슬소가(24)

자른 호미 저근 부십 → 자른 허미 적은 보십(26)

辛苦히 밋부쳐서 → 辛苦히 매갓구어(26)

兵馬로 좃바른 듯 → 兵馬로 깃발분 듯(30)

- 빈 씨플쑤이로다 → 빈 썸플쑤이로다(32)
 駕轎잡고 니룬 말이 → 駕轎잡고 일는 말리(34)
 설울슨 우리 性命 → 설러울산 우리 性命(35)
 나라히 돌려시니 → 나라헤 달녇스니(35)
 가족웃 풀戰筭이 → 가족웃 풀戰筭이(37)
 네 모음에 돌려시니 → 네 마음에 달엿시니(47)
 天恩을 닛디 말고 → 天恩을 닛지 말고(49)
 그 둥에 榮華 이서 → 其中에 榮華 잇서(52)
 各牧場에 ㄹ독하고 → 各牧場에 가득하고(59)
 도튼 썸 그 世界에 → 조흔 썸 그 世界에(62)
 낙논 듯 썸낙논 듯 → 나난 듯 썸노난 듯(98)
 북소리 旗幟 빗티 → 북소래 旗幟 빗헤(99)
 닻투와 지조 뵈니 → 닻투와 재조 뵈나(100)
 無端흔 츄 비밀이 → 無端한 찬 비밀암(105)
 놀라 썸여 니러나셔 → 놀나 썸여 일어나셔(106)
 孤臣의 수문 금신 → 孤臣의 숨은 근심(110)

앞의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이요, 뒤의 것은 우헌집본이다. 대체로 보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이 시대적으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것이 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後來, 轉寫를 거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헌집본이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두 이본 사이에는 표기상 고풍의 차이뿐 아니라 한자 표기 등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 民物은 어터하니 → 民物도 壯大하다(8)
 殿牌에 肅謝하며 → 殿牌에 肅拜하며(19)
 海防도 □止부며 → 海方도 들너보며(22)
 님 겨신 터 알외고져 → 人君 기신 터 알외고져(36)
 羅鋪移米 虛費하니 → 羅鋪移轉 虛費하니(41)
 金光草 프룬 빗치 → 金剛草 푸룬 빗치(66)
 왓던 跡跡 기 워 알며 → 왓던 踪跡 기 워 알며(81)
 李文京 三別抄논 → 李景文 三別抄난(82)
 兵械도 精巧하고 → 兵器도 精巧하고(82)
 武士도 驍健하니 → 武士도 壯健하니(83)
 登瀛丘 츄자가셔 → 登靈區 차자가셔(87)

이렇게 보면 앞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이 비교적 한자 표기가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李文京’, ‘羅鋪移米 虛費^ㄱ니’ 등의 한자 표기가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어느 것으로 표기하더라도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Ⅲ. 段落別 內容展開

우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라별곡〉 120행의 시행을 구성 단락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序詞, 本詞, 結詞의 내용전개에 따라 단락별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 序詞(1-20행)

3.1.1. ‘主城’과 ‘兩縣’의 세 고을로 되어 있는 ‘大海’에 떠 있는 ‘혼 도각 彈丸小島’인耽羅가 ‘聖朝에 臣屬^ㄷ매’ ‘節制使兼防禦’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1-10행)

3.1.2. ‘寧海에 찾던 印綬’를 인제하고 ‘嶺湖로 도라’ ‘重溟을 건너’ ‘禾北鎮 下碇’하여 제주목사로 부임한다는 내용이다. (11-20행)

3.2. 本詞(21-112행)

3.2.1. 巡歷길에 나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펴 보니 ‘衣食이 艱窘’하니 ‘五六月 盡力^ㄱ하여’ ‘薄田을 耕作’하나 ‘惡風과 심혼 霜雨’로 흉년을 맞이한다고 노래하였다. (21-32행)

3.2.3. 그나마도 ‘公債갑고’ 나면 살아가기가 힘드니 순력하던 목사의 ‘駕轎잡고’서 딱한 사정을 ‘님 겨신 디’ 알려 달라고 호소한다. 백성들은 ‘가족옷 풀戰笠’의 의관과 ‘모밀밥 橡實粥’의 음식을 먹으니 ‘羅鋪移米’를 허비하나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滄溟이 限隔^ㄱ고’ ‘邦禁이 嚴截^ㄱ하여’ 살 곳이 못 되기는 紇干山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33-44행)

3.2.4. ‘天恩을 닛디 말고 父子兄弟 相愛’하고 ‘네 道理 盡心’하면 ‘玉皇’이 ‘福祿’을 주고 ‘貧賤’을 벗어난다고 訓民하고 있다. 또한 ‘三聖神 소사난 후’ ‘民俗이 淳和’하고, ‘歲事도 豐登’하고, ‘人畜도 蕃盛’하여 ‘宛馬種’이 牧場에 가득하고, ‘洞庭橋’이 ‘公私園’에 향내나니 ‘和平^ㄱ 혼 別天地’이며 ‘秦皇漢武’도 보기를 원한 곳에서 너희는 生長했으며, ‘世上이 春夢이니’ ‘드들 거시’ 없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山房山 절터와 三別抄亂의 土城을 보면 만사가 헛되다고 노래한다. (45-80행)

3.2.5. ‘閑漫한 營中公事’로 ‘勝地나 遊賞’하니 ‘翠屏潭 題名^ㄱ고’ ‘登瀛丘 츠자가서’ ‘流觴曲水 노리^ㄱ며 追雉 산영’한다는 내용이다. (81-102행)

3.2.6. 그러나 '民事을 헤아리니 心膽이 아득하여' '臥仙閣' '望京樓'에 의지하여 '長安'이 있는 쪽을 멀리 바라 보면서 '險海을 利涉하여' '孤臣의 수문 금신'을 '우리 님군'께 '細히' 알리고 싶다는 戀君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03-112행)

3.3. 結詞(113-120행)

3.3.1. '술이나 盡醉하여' '萬斛시음'을 풀겠다는 작자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113-120행)

즉 서사에서는 耽羅의 '建置沿革'과 '濟州牧使 赴任'에 대한 단락들이고, 本詞는 '巡歷', '勝地遊賞', '戀君'의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순력의 단락은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노래한 소단락과 백성들을 경계하는 '訓民'의 소단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醉興'을 내용으로 하는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요약하여 구성 단락의 모형을 새로이 제시하여 윤석창 교수의 구성 단락 모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序詞	
1) 建置沿革	(1-10행)
2) 濟州牧使 赴任	(11-20행)
2. 本詞	
1) 巡歷	(21-80행)
(1) 窮乏한 生活相	(21-44행)
(2) 訓民	(45-80행)
2) 勝地遊賞	(81-102행)
3) 戀君	(103-112행)
3. 結詞: 醉興	(113-120행)

1. 序詞: 濟州牧使 赴任
2. 本詞
1) 困窮한 生活相
2) 訓民
3) 遊賞과 戀君
3. 結詞: 仙境

나중 것이 윤석창 교수의 구성 단락 모형인데, 윤석창 교수는 구성 단락의 구분에서 서사를 '濟州牧使 赴任'으로만 처리하여 '建置沿革'의 단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본사에 와서는 구성 단락 구분을 인상비평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셈인데 '困窮한

生活相', '勝地遊賞', '戀君' 등으로 구분하여 단락과 단락 사이의 유기적 구조가 없는 것처럼 분석하여 놓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작품의 미적 구조는 아무런 유의미성을 획득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본사의 내용은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巡歷'하면서 백성들의 '窮乏한 生活相'을 실제 확인하고 '訓民'하는 내용과 순력을 마치고 나서 '勝地遊賞'하고 돌아와서 望京樓에서 '戀君'하는 내용들로 파악하면 단락과 단락 사이의 유기적 구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 작품의 미적 구조의 의미도 되살아난다. 결사는 '仙境'의 의미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은 '醉興'의 세계에 빠진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일진대, 이런 점에서 결사의 의미는 '선경'으로 요약하는 것보다는 '취흥'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모습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사작품의 단락 구성방식 가운데 취흥의 의미단락은 중요한 결사 표현방식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취흥의 의미단락들이 모두가 선경의 의미로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몇몇 작품에서 실제로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술리 넘어거니 벗지라 업술소나

블니며 툃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킌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ㅎ락 노혜로 노거니
 天地(천지)도 넓고 넓고 日月(일월)도 혼가(閑暇)하다
 羲皇(희황)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놀리고 내 百年(백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上(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 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곰도 亦君恩(역군은) 이샷다(宋純, 俛仰亭歌)⁶⁾

(나)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잔 머거보오

北斗星 기우려 滄海水 부어내여
 저 먹고 날 먹여날 서너 잔 거후로니
 和風이 짹짹하야 兩腋을 추쳐 드리
 九萬里 長空에 저기면 날리로다

6) 林基中, 《譯註解說 朝鮮朝의 歌辭》, 成文閣, 1979, p. 30.

이 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 난화
億萬蒼生을 다 醉케 맹근 後의
그제야 고터 만나 또 한잔 하자고야
말 디자 鶴을 타고 九空의 올라 가니
空中 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할 구버보니
기피랄 모라거니 가인들 었디 알리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 비친 대 업다(鄭澈, 關東別曲)⁷⁾

(다) 었그제 비잔 술이 어도록 니건나니
잡거니 밀거니 슬카장 거후로니
마암의 매친 사람 겨그나 하리나다
거문고 시웁 언저 風入松이야고야
손인동 主人인동 다 니저바려세라
長空의 멧난 鶴이 이 골의 眞仙이라
瑤臺月下의 행쳐 아니 만나산가
손 이서 主人다려 널오대 그대 권가 하노라(鄭澈, 星山別曲)⁸⁾

(라) 琴書 消日 하난 곳의 革酒 樽盈 하여시니
長歌 短曲 두 세 사람 一盃 一盃 다시 부어
頽然 玉山 醉한 後에 石頭 閑眠 잠을 드러
鶴唳 一聲 깨다르니 溪月 三更 밭갈세라
生涯 淡泊 내 질기니 富貴 功名 부러하랴
千秋 萬歲 億萬載의 이리 저리 하오리라(車天輅, 江村別曲)

(마) 蘇學士 옛 風流를 손을 움겨 부쳐두고
一盃酒 가득 부어 萬年祝壽 다시하니
南山松柏 푸르렀다 祝壽를 맞친 後에
群仙의 손을 잡고 招仙島로 가жат더니
청청한 鶴의 소리 깨다르니 꿈이로다
꿈 가운데 노돈 景을 혼자 안자 노래하니
南山에 겨 古력이 이 노래 가져다가

7) 金聖培 外 4人, 《註解 歌辭文學全集》, 集文堂, 1961, p. 51.

8) 앞의 책, p. 68.

9) 앞의 책, p. 120.

우리 聖主 龍床下에 細細히 들니고져(趙星臣, 皆岩歌)¹⁰⁾

(가)는 송순의 〈면앙정가〉의 결사부분이다. 굳이 선경의 의미로 쓰인 부분을 든다면 “羲皇(희황)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의 시행인데 이것만 가지고 (가)부분이 전체적 의미가 선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정철의 〈관동별곡〉의 결사부분인데, 선경의 세계가 나타난 행은 “말 디자 鶴을 타고 九空의 올라 가니 空中 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부분으로 이것으로만 (나)의 의미를 선경으로 보는 것도 무리다. (다)는 정철의 〈성산별곡〉인데, 그 중 “長空의 떴난 鶴이 이 골의 眞仙이라 瑤臺月下의 행어 아니 만나산가” 부분이 선경을 의미하는 행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다) 전체 의미를 선경의 세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는 차천로의 〈강촌별곡〉인데 아예 선경의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마)는 조성신의 〈개암가〉로 “群仙의 손을 잡고 招仙島로 가갓더니 청청한 鶴의 소리 께다르니 꿈이로다” 부분이 선경의 세계가 나타났는데 이것만으로는 (마)의 세계를 선경으로 보는 것도 역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나)의 정철의 〈관동별곡〉, (다)의 정철의 〈성산별곡〉, (마)의 조성신의 〈개암가〉 등은 그런대로 선경의 세계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의 송순의 〈면앙정가〉나 차천로의 〈강촌별곡〉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경의 세계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¹¹⁾ 이러한 사실들은 〈탐라별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든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IV. 對偶法의 使用

가사 작품에서 對偶法의 의미를 논한 것은 李慶善 교수의 “歌辭와 辭賦의 比較研究” 논문에서이다.¹²⁾ 그는 이 논문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을 當句對, 雙句對, 隔句對로 나누어 실제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李相翊 교수에 의해서 宋純의 〈俛仰亭歌〉뿐만 아니라 丁克仁의 〈賞春曲〉과 정철의 〈星山別曲〉을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데, “絃景과 抒情의 調和：〈俛仰亭歌〉의 구성과 표현”이라는 논문에서이다.¹³⁾ 이러한 시각은 송순과 정철의 관계뿐만 아니라 〈면앙정가〉에 나타난 대우법이 다른 여러 작품에 끼

10) 앞의 책, p. 198.

11)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취흥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속가인 〈靑山別曲〉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연인 8연의 경우 “가다니 뵈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티와 잡스와니 내엇디 향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로 되어 있다.

12) 李慶善, “歌辭와 辭賦의 比較研究”, 《中國學報》통권6호, 韓國中國學會, 1967.

13) 李相翊, “絃景과 抒情의 調和：〈俛仰亭歌〉의 구성과 표현”,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集文堂, 1992, pp. 621~635.

친 영향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정언유의 <탐라별곡>을 살펴 보면 대우법의 특징이 이들 작품에 못지않게 두드러지게 구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논문에서 적용한 당구, 쌍구, 격구의 대구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	구	비 고
當句對	<u>흔</u> <u>도각</u> <u>彈丸小島</u> <u>자른</u> <u>호의</u> <u>저근</u> <u>부십</u> <u>金方慶</u> <u>崔瑩</u> <u>將軍</u> <u>赤松子</u> <u>安期生</u> <u>을</u> <u>무리</u> " " <u>모든</u> <u>돌이</u> <u>눈</u> <u>눈</u> <u>듯</u> <u>쉬</u> <u>눈</u> <u>눈</u> <u>듯</u> <u>睡</u> <u>鄉</u> <u>인</u> <u>듯</u> <u>醉</u> <u>鄉</u> <u>인</u> <u>듯</u> <u>塵</u> <u>客</u> <u>인</u> <u>가</u> <u>仙</u> <u>官</u> <u>인</u> <u>가</u>	대해에 <u>셔</u> <u>잇</u> <u>난</u> <u>터</u> 辛苦히 <u>미</u> <u>부</u> <u>쳐</u> <u>서</u> 왔던 <u>跡</u> <u>의</u> <u>기</u> <u>워</u> <u>알</u> <u>며</u> 거의 <u>서</u> <u>로</u> <u>만</u> <u>날</u> <u>러</u> <u>니</u> <u>구</u> <u>름</u> <u>인</u> <u>가</u> <u>비</u> <u>단</u> <u>인</u> <u>가</u> 암곡이며 <u>님</u> <u>슈</u> <u>로</u> <u>다</u> 客懷世慮 <u>有</u> <u>無</u> <u>間</u> <u>에</u> 기 <u>워</u> <u>라</u> <u>서</u> <u>分</u> <u>辨</u> <u>하</u> <u>리</u>	同對 類對 類對 類對 類對 類對 類對 反對
雙句對	<u>山</u> <u>北</u> <u>은</u> <u>兩</u> <u>縣</u> <u>이</u> <u>오</u> <u>東</u> <u>城</u> <u>門</u> <u>드</u> <u>러</u> <u>오</u> <u>니</u> <u>風</u> <u>俗</u> <u>도</u> <u>돌</u> <u>너</u> <u>보</u> <u>며</u> <u>天</u> <u>時</u> <u>도</u> <u>그</u> <u>릇</u> <u>되</u> <u>어</u> <u>滄</u> <u>溟</u> <u>이</u> <u>限</u> <u>隔</u> <u>하</u> <u>고</u> <u>邦</u> <u>禁</u> <u>이</u> <u>嚴</u> <u>截</u> <u>하</u> <u>니</u> <u>人</u> <u>畜</u> <u>도</u> <u>蕃</u> <u>盛</u> <u>하</u> <u>여</u> <u>橘</u> <u>林</u> <u>이</u> <u>오</u> <u>御</u> <u>乘</u> <u>도</u> <u>에</u> <u>서</u> <u>나</u> <u>고</u> <u>구</u> <u>훈</u> <u>거</u> <u>시</u> <u>무</u> <u>어</u> <u>시</u> <u>리</u> <u>兵</u> <u>械</u> <u>도</u> <u>精</u> <u>巧</u> <u>하</u> <u>고</u> <u>武</u> <u>士</u> <u>도</u> <u>驍</u> <u>健</u> <u>하</u> <u>니</u> <u>獐</u> <u>鹿</u> <u>도</u> <u>만</u> <u>커</u> <u>니</u> <u>와</u> <u>武</u> <u>勇</u> <u>도</u> <u>壯</u> <u>하</u> <u>도</u> <u>다</u>	山北은 <u>州</u> <u>城</u> <u>이</u> <u>라</u> 東城門 <u>드</u> <u>러</u> <u>오</u> <u>니</u> 風俗도 <u>살</u> <u>펴</u> <u>보</u> <u>니</u> 天時도 <u>그</u> <u>릇</u> <u>되</u> <u>어</u> 滄溟이 <u>嚴</u> <u>截</u> <u>하</u> <u>니</u> 邦禁이 <u>嚴</u> <u>截</u> <u>하</u> <u>니</u> 人畜도 <u>蕃</u> <u>盛</u> <u>하</u> <u>여</u> 橘林이 <u>오</u> 御乘도 <u>에</u> <u>서</u> <u>나</u> <u>니</u> 구훈 거시 <u>무</u> <u>어</u> <u>시</u> <u>리</u> 武士도 <u>驍</u> <u>健</u> <u>하</u> <u>니</u> 武勇도 <u>壯</u> <u>하</u> <u>도</u> <u>다</u>	反對·類對 類對·類對 類對·類對 類對·類對 異對·異對 異對·類對 異對·異對 類對·同對 類對·同對 類對·類對 異對·異對
隔句對	{ <u>閭</u> <u>閭</u> <u>이</u> <u>錯</u> <u>雜</u> <u>하</u> <u>던</u> { <u>街</u> <u>路</u> <u>가</u> <u>廣</u> <u>平</u> <u>하</u> <u>던</u> { <u>가</u> <u>족</u> <u>옷</u> <u>플</u> <u>戰</u> <u>笠</u> <u>이</u> { <u>모</u> <u>밀</u> <u>밥</u> <u>橡</u> <u>實</u> <u>粥</u> <u>이</u> { <u>牧</u> <u>子</u> <u>一</u> <u>族</u> <u>鮑</u> <u>作</u> <u>구</u> <u>실</u> { <u>缸</u> <u>格</u> <u>의</u> <u>貿</u> <u>易</u> <u>무</u> <u>리</u>	四隅에 <u>石</u> <u>牆</u> <u>이</u> <u>오</u> 兩行에 <u>楊</u> <u>柳</u> <u>로</u> <u>다</u> 이 <u>무</u> <u>슨</u> <u>衣</u> <u>冠</u> <u>이</u> <u>며</u> 기 <u>엇</u> <u>던</u> <u>飲</u> <u>食</u> <u>일</u> <u>고</u> 이에서 <u>더</u> <u>설</u> <u>우</u> <u>며</u> 기 <u>아</u> <u>니</u> <u>難</u> <u>堪</u> <u>하</u> <u>던</u> <u>가</u>	類對·異對 類對·類對 異對·異對 異對·異對 異對·類對 類對·類對

	시	구	비 고
	힘대로 救濟키는	官長의게 미여시나	類對 · 類對
	전디여 지내기는	네 ㅁ음에 둘러시니	反對 · 類對
	飛龍 又호 宛馬種은	各牧場에 ㅁ득하고	類對 · 類對
	黃金 又호 洞庭橋은	公私園에 ㅁ내나니	類對 · 類對
	老人星 블근 光彩	壽域을 여러 노코	類對 · 類對
	金光草 프른 빛치	白髮을 검게 하니	類對 · 類對
	山房을 불작시면	빈 절단 基址 잇고	類對 · 類對
	土城을 슬퍼보면	네 陣셔 이서시니	類對 · 類對

이렇게 보면 당구대, 쌍구대, 격구대의 모든 대우법이 골고루 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송순의 〈면양정가〉에서부터 비롯되어 松江文學에 미치고, 또 그것이 모든 가사나 시조 작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탐라별곡〉도 이러한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탐라별곡〉의 표현기법상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가사 작품은 그리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것도 대부분 流配歌辭에 속하는 것들로서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安肇煥의 〈萬言詞〉와 〈萬言答詞〉 정도이다. 이들 작품은 당대 제주도의 사회상보다는 유배자들의 특수한 서정세계를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탐라별곡〉은 유배자가 아닌 목민관의 서정세계를 노래한 기행가사로서 당대 제주도의 사회상이나 목민관의 고뇌를 읽어 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16세기 제주도 사회상을 묘사한 金淨의 〈濟州風土錄〉이나 林梯의 〈南溟小乘〉, 17세기를 그린 金尚憲의 〈南槎錄〉, 李健의 〈濟州風土記〉 등이 있으나 이들이 모두 한문수필인 점을 생각할 때 〈탐라별곡〉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탐라별곡〉에 관한 연구 성과는 극히 미진한 실정에서 작품의 이본에 대한 대교와 작품 분석과 평가방법으로 구성 단락의 논의, 그리고 표현방식인 對偶法의 구사들을 고찰함으로써 작품의 미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본의 대교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 두루마리 필사본이 〈迂軒集〉 소재 필사본보다는 표기상 더 고풍이었으며, 한자 표기에 있어서도 더 정확한 표기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구성 단락의 모형은 기존의 분석과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구분하였다. 서사에서는 建置沿革과 濟州牧使 赴任의 단락으로 되어 있었고, 본사에서는 巡歷, 勝地遊賞, 戀君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순력의 단락은 궁핍한 생활상을 노래한 소단락과 訓民의 소단락으로 구분되었다. 결사는 醉興의 의미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 작품의 결사 처리방식으로 자주 쓰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표현상 두드러진 기법으로 대우법을 살펴 보았는데, 當句, 雙句, 隔句의 모든 방식들이 능숙하게 골고루 구사되고 있었다.

參 考 文 獻

- 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王朝實錄》43, 探求堂(影印), 1970.
- 국어국문학회 편, 《歌辭文學研究》, 정음문화사, 1986.
- 《國朝文科榜目》2, 太學社(影印), 1988.
- 金尚憲, 《南槎錄》, 金禧東 譯, 永嘉文化社, 1992.
- 金錫翼, 《耽羅紀年》, 瀛洲書館, 1918.
- 金聖培 外 4人, 《註解 歌辭文學全集》, 集文堂, 1961.
- 金舜東 編, 《韓國故事大典》, 回想社, 1969.
-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국학자료원, 1994.
- 《萬姓大同譜》上, 明文堂(影印), 1983.
-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 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刊行委員會 編, 《韓國古典詩歌作品論》2, 集文堂, 1992.
-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 李相翊 外, 《古典文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集文堂, 1994.
- 李重煥, 《擇里志》, 李翼成 譯, 乙酉文化社, 1994.
- 林基中, 《譯註解說 朝鮮朝의 歌辭》, 成文閣, 1979.
- 鄭彥儒, 《迂軒集》4卷 2冊(筆寫本): 《耽羅文化》第1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2.
- _____, 〈耽羅別曲〉(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圖書館 所藏 筆寫本)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 《中國古今地名大辭典》, 景仁文化社(影印), 1984.
-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影印), 1989.
- 尹石昌, “「耽羅別曲」研究”, 《명지어문학》 제14호, 명지대학 국어국문학과, 1982.